

커넥티드카·AR·VR... 이통사 킬러콘텐츠가 5G 판도 좌우

5G 넥스트 스텝

(下) 서비스 발굴

이통업계, 5G시대 BM찾기 고심
SKT, 자율주행차 플랫폼 주력
KT, VR·AR 기술 95%로 확대
LGU+, 지능형 CCTV 등 개발

내년 5G가 상용화되면,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5G로 인해 일상생활에 녹아들 체험 서비스는 곧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으로 연계된다. 5G 통신을 이용할 만한 데이터 사용료를 높이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야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거두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도 5G 시대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아예 콘텐츠 사업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통사, 자율차·실감형미디어 등 서비스 발굴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5G 상용화를 앞둔 이동통신 3사는 5G 시대의 비즈니스모델(BM)을 찾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5G 네트워크가 구축돼도 이를 이용해 즐길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망 구축과 더불어 5G 관련 서비스·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체험관에서 지능형CCTV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야구장, 서울광장, 자율주행실증도시 등 다양한 장소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 개관한 'T.um (티움)'은 5G로 이뤄진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총망라해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총 514평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실감형 미디어를 통한 VR 쇼핑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하이퍼루프 등 30년 후 미래 체험 가능하다. SK텔레콤이 그리는 5G 시대의 '밀그림'인 셈이다.

SK텔레콤이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다. 전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0억달러에서 2035년 1조152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초저지연의 5G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11월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인 이후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화성 'K-시티'에서 복수의 5G 자율주행차가 서로 통신하며 운행하는 시연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엔비디아와도 손잡고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3D 초정밀 지도(HD Map) 제작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차량 통신(V2X 등) ▲자율주행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기도 했다.

KT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지난해 기준 1800억원인 실감형미디어 시장을 1조원까지 키우고, 미국 대비 79% 수준인 VR·AR 기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5G 킬러콘텐츠로 꼽히는 VR·AR 시장은 그간 콘텐츠와 핵심 기술이 부재하고 관련 법규가 모호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VR·AR 시장 규모는 1800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 기술 격차도 2.2년 뒤쳐졌다. KT는 연내 50억 규모 정도의 VR·AR 전용 펀드 조성 등 콘텐츠 투자를 진행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기반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연초에 원격제어 드라이브, 지능형 CCTV, 5G 생중계, 8K VR(초고화질 가상현실 영상), 스마트 드론, FWA(UHD 무선 IPTV) 등 6대 5G 핵심 서비스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시대가 다가오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는 고화질 비디오, 기업 간 거래(B2B)는 원격제어와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 높여야'...5G 마케팅도 '시동'

5G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5G 마케팅도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사 5G 브랜드 '5GX'를 유튜브, TV 광고 등을 통해 공개했다. 5GX는 차세대 네트워크인 5G가 산업·경제·일상 모든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생활 혁신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고객들이 5G에 대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춰 5G를 소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가상현실기술과 연결한 '5GX VR', 공장 자동화와 연결한 '5GX 팩토리' 등으로 5GX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또한 자사 5G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5G 시작' 등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고 KT 위즈파크, 월드컵 거리응원 등의 행사에서 체험형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5G를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열리는 '제18회 아시안게임'을 통해 한국의 5G를 알리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제까지는 전체 커버리지로 넓게 망을 구축했다면 5G 시대에는 서비스 대상이 사람 뿐 아니라 사물, 로봇 등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각 서비스별로 특화된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이동통신사 회사 위주로 속도 경쟁이 주력이었다면 5G 시대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여야 한다"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른 속도가 주력인 VR·AR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5G 네트워크의 초(超)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형상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JY, 인도 출국... 文 대통령과 '첫 만남'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석방 후 첫 공개일정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했다. 9일로 예정된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새 휴대폰 생산 거점인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24만㎡ 규모로 증설하기 시작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0억여위(약 798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는

인도 국민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준공식 참석이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난 이후 사실상 첫번째 공개 일정이다.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유럽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5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지난달 홍콩과 일본에 잇따라 방문했으며 이번 인도 출국은 4번째 해외 출장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참석 외에 다른 현지 일정은 없으며, 귀국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美中 무역전쟁 격화... 주가 출렁일땐 우량 종목에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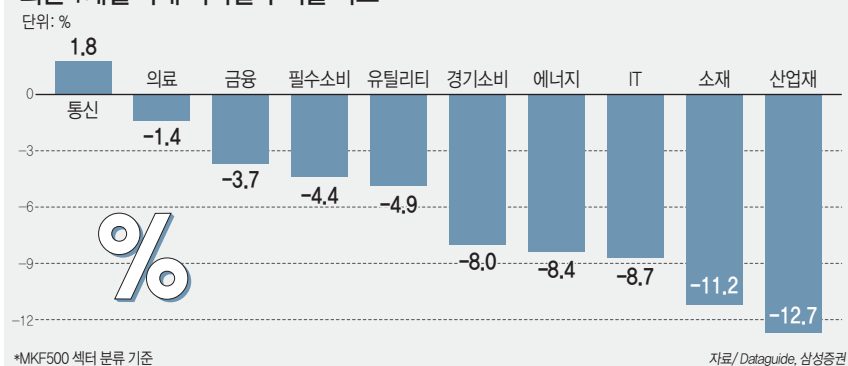
전세계 증시 불확실성 지속될 듯 낙폭 큰 종목 중심 저가매수 추천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한데 이어 중국도 맞불 관세를 부여하며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조정장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무역분쟁은 투자 심리를 편터멘탈(기초체력)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낙폭이 과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에 나서라는 것을 추천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 해관(세관)총서는 미국보다 1분 늦은 낮 12시1분(현지시간) 보복관세를 발표시켰다. 중국은 앞

최근 1개월 국내 섹터별 수익률 비교



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34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동일한 규모의 화학공업품과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 등에 보복관세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어 이날 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공개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출 5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 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한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에 상당량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분기 상장사 실적도 좋지 못하다. KB증권에 따르면 2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52조4000억원, 순이익은 37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로는 전년대비 각각 8.6%, 2.6% 증가한 수준이고, 전분기 대비 2.6%, 3.1% 늘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분기 성장률도 비슷한 수준이다"면서 "2분기 실적시즌도 지수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개별종목 대응이 적합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가 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낙폭이 과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서정훈 삼성증권 공인재무분석사(CFA)는 "(미중 간 보복관세 조치에도) 시장 반응은 되려 차분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했고, 최근 무역분쟁의 프록시 역할을 담당중인 위안화 역시 절상으로 반전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골디락스 성격의 고용지표를 동력으로 견조한 상승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안정된

시장 분위기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태세로 전환됐음을 예고한다"면서 "시장의 관심은 관세와 같은 직접적 문제에서 보다 장기적 합의점과 편터멘탈 이슈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중론도 만만찮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만큼 트럼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전쟁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시킬 것이라 우려에서다. 세계 경제 상황도 우호적이지 않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 이슈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향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슈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면서 11월까지 전 세계 증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이하로 저가 매력 부각돼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동성 축소가 이어지고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늘어나는 중국의 기업부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 점차 시장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손영식 기자 sonumji301@